



종교다원주의의 여러 얼굴

- 일원적, 다원적, 고전적 다원주의 -

김종철¹⁾

여러 사람들이 산길을 걷고 있다. 모두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산은 초행길이다. 산을 한참 오르던 도중에 산길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지점이 나왔다. 이 때 산을 오르던 이 등산객들은 여러 개로 나뉘는 산길을 보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들은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오직 이 길만이 산꼭대기로 가는 길이야”라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길만이 산꼭대기로 가는 길인 것은 맞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라고 하였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의 길만이 산 정상으로 간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모든 길도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야!”라고 하였다.

1. 들어가며 - 종교 다원성,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관용

휴일이었던 6월 4일 새벽, 중구 필동에 소재한 대한 불교 조계종 종립 D대학교 캠퍼스 내에 조성된 불상에 이교도의 소행으로 보이는 훼손행위가 저질러졌다. 높이 4미터에 청동으로 조성된 부상에 누군가 붉은 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그 아래 ‘오직 예수’라고 써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성격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느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식의 배타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²⁾

위 사건은 2000년 6월에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물론 이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몇 가지 점에서 개념상, 논리상 혼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원성³⁾과 다원주의⁴⁾ 그리고 관용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다원성의 유일한 논리적 귀결이 다원주의라는 이해이다. 셋째는, 다원주의를 관용과 동치 시키는 것 내지는 다원주의만이 관용으로 귀결된다는 식의 논리의 비약이 있다. 그렇다면 종교 다원성, 종교 다원주의, 관용을 각각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종교의 다원성은 서로 다른(최소한 서로 다르게 보이는) 여러 종교가 상존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데올로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입장들 중에서 그 다양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내지 여러 종교가 모두 옳다는 입장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⁵⁾ 그리고 관용이란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힘으로서 그들의 사상과 종교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이다.

표 1: 종교 다원성,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관용의 개념

종교 다원성	현상
종교 다원주의	현상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 하나
관용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앞에서 든 예를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현상) 자체는 다원성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과 판단 중에서 “하나의 길만이 산 정상으로 간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모든 길도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다원주의이다. 관용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힘으로 우리가 가는 길로 끌어 들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원성과 다원주의와 관용을 이해할 때, 다원성이라는 현상(사실)이 반드시 다원주의라는 이데올로기(당위)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즉 “우리는 종교 다원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은 옳지만, “그러므로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해야한다”라는 말은 추가적인 논리가 없으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에서 바로 당위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원주의자가 되는 것만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다원성에 대한 다원주의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관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종교만이 옳고, 다른 종교는 그르다는 입장을 취한 배타주의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힘이 아닌 설득으로 자신의 종교의 유일성과 우월성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 그렇다면 다원성을 해석하는 여러 입장은 다원주의 말고도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종교 다원성을 해석하는 여러 입장들(1): 큰 그림

- 배타주의와 포괄주의와 다원주의 Exclusivism, inclusivism and pluralism

...불교와 기독교간에 긴밀한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협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더 많은 대화를 통하면 정말 종교는 평등합니다...사실 제가 불교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기독교에 와보니까 같은 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 근본적인 사상에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종교의 평등성과 차별성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마호멧교나 다 평등합니다...종교가 다 평등하면서도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비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한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그 차별성(이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의)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 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 넘을 수 없으니까 그 차별성은 차별성대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비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종교로서 평등한 공통분모에 서서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나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우리 집안...중에도 아직도 불교를 믿는 열렬한 식구들이 있거든요. 아무런 서로의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차별성을 인정하지 절대 진리라고 혼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⁷⁾

위의 글은 교계의 원로인 J목사가 2004년 6월 D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 중 일부이다.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해야 한다”, “기독교나 불교나 마호멧교나 다 평등하다”,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 구원을 받겠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차별성을 인정해야지 절대 진리라고 혼자 주장할 수 없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장을 종합해 보면, J목사는 종교 다원성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1) 배타주의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어느 한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틀리다는 입장이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파편적인 진리가 있고 그 나름의 구원을 가져다주지만,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인식론적으로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이 바로 그것인데, 앞의 예에서 보자면, 하나의 길(종교)만이 산 정상(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것이다.

어느 학자는 이러한 입장을 배타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정주의라고 바꿔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하는데⁸⁾, 이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다. 뒤에 보는 것처럼 배타주의 뿐 아니라 포괄주의와 다원주의 역시 배타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타주의자들이 모두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들을 세분화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비그리스도인의 운명에 관해서이다. 배타주의자들 중에는 고전적인 지옥이 있다는 견해부터 시작해서, 지옥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라고 파악해야 한

다는 견해, 사후에 멸절된다는 견해, 사후에 다시 복음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견해, 인간의 선교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낙관론을 펴는 견해 등 다양한 입장이 있다.

(2) 포괄주의

많은 카톨릭 신학자(칼 라너, 폴 니티)와 일부의 복음주의자들(존 샌더즈, 클락 피녹)이 주장하는 것으로, 존재론적으로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인식론적으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구원 받는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어느 한 길(종교)만이 산 정상(구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산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칼 라너의 유명한 말인 (나아만, 벨기세텍, 동방박사와 같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교 안에 있었고, 이방 세계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포괄주의를 취할 때, 다원주의라는 급진적인 선택이 불필요해지고, 역사적 교리를 계속 고수할 수 있다고 한다.⁹⁾

(3) 다원주의

대표적으로 존 히크 John Hick의 입장으로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하나의 길만이 아니라 다른 길들도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존 히크는 처음에 복음주의자였다가 나중에 종교 다원주의자로 돌아선 인물이다. 존 히크는 종교 다원주의자로서의 회심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내가 버밍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다른 종교를 믿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도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결론이 종교의 다원성을 바라보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즉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¹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말은 어느 면에서 히크의 입장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첫째, 히크의 복음주의적 배타주의에서 종교 다원주의로의 전환은 불변하는 진리로 여겨온 천동설이 지동설로 교체되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였고, 둘째, 천동설의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의 지동설로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관에서 벗어나 신(궁극적인 실재) 중심의 종교관으로 바뀐 것이고, 셋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칸트가 물자체와 현상을 나누는 것처럼, ‘궁극적인 실재(신)’와 ‘문화를 통해 그 궁극적인 실재를 경험한 종교들’을 나누었기 때문이다.¹¹⁾

우리가 알 수 없는 궁극적인 실재는 있지만, 어느 한 종교가 그 실재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종교가 나름대로 그 실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종교에 알려진 신은 궁극적인 실재 그 자체는 아니나 그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들, 서로 다른 모습들이라는 것이다.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의 여러 부분들을 만지고 여러 다른 말을 하지만 결국 코끼리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장님의 말만이 옳고 다른 장님의 말은 틀렸다고 할 수 없듯이, 여러 종교가 신에 대해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실재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구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종교가 다른 구원의 조건과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궁극적인 실재 중심으로 옮겨가는 근본적인 인간의 변혁”이라는 하나의 구원을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하나의 구원으로 가는 다른 길(더 정확히는 다른 길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존 힉크는 이러한 다원주의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독교의 높은 기독교론 high christology,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는 교리라는 것이다. 다른 종교(이슬람조차)는 궁극적인 실재가 인간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기 되지만, 높은 기독교론에 의할 경우 계시자와 계시되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월성과 유일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 힉크는 예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축을 옮길 것을 제안하면서 높은 기독교론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한다.

표 2: 종교 다원성을 해석하는 3가지 입장-큰 그림

배타주의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준다. (이 길만이 산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포괄주의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거이지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종교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지만, 다른 길을 가도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다원주의	여러 종교가 하나의 신, 하나의 구원의 다른 표현이기에 모든 종교가 같은 구원을 가져다준다. (모든 길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 다원성이라는 현상을 해석하는 3가지 입장들, 즉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를 살펴봤는데, J목사의 발언은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또한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전개되는 종교 다원주의는 모던적인 종교 다원주의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3. 종교 다원성을 해석하는 여러 입장들(2): 세부 그림

- 일원적/다원적 다원주의, 협의의/광의의 포괄주의, 폐쇄적/개방적 배타주의

...산을 한참 오르던 도중에 산길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지점이 나왔다. 이 때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은 여러 개로 나뉘지는 산길을 보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들은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오직 이 길만이 산꼭대기로 가는 길이야”라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길만이 산꼭대기로 가는 길인 것은 맞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산 정상에

서 만나게 되어 있어”라고 하였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의 길만이 산 정상으로 간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모든 길도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야!”라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디 덧붙인다. “그래 맞아 모든 길이 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지만 그 산 정상이라는 것은 길마다 각각 다르지!”

종교 다원성을 해석하는 앞의 삼분법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적 상황에서 주장되는 종교 다원주의를 포섭하기에는 낡고 부족하다. 따라서 다원주의를 일원적 다원주의와 다원적 다원주의로 구분하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주 상이한 두 가지 입장이 다원주의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으며, 다원주의를 일원적 다원주의로만 볼 경우, J목사의 예처럼 전혀 그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1)일원적 다원주의와 다원적 다원주의¹²⁾

종교의 다원성에 대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두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다원주의 역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모던적 의미에서의 다원주의와는 다르다. 모던적 다원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존 히이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다원주의는 존 캅(John Cobb) 등에 의해 새롭게 주장되는 것으로서 다원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원적 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대이야기의 부정과 불가 공약성에 따라, 각각의 종교는 자기 나름의 신(神) 개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만한 하나의 신 개념, 하나의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여러 종교들 중에 어느 종교가 더 참되고 우월한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는 그 종교 식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식의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더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환언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예를 보자면 “모든 길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지만, 산 정상은 하나가 아니고 길마다 별개의 산 정상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길이 다르므로 가는 곳도 다르고 각 길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정상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태도는 진리 판단의 문제를 취향 판단의 문제로 돌려 버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서로 다른 종교도 모두 옳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¹³⁾

이제까지의 서술에 비추어 보면 왜 존 히이의 다원주의를 일원적이라고 한정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궁극적인 실재, 같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산 정상은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J목사의 발언은 일원적 다원주의라기 보다는 이원적 다원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협의의 포괄주의와 광의의 포괄주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원의 근거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사건임을 인정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이 포괄주의이다. 그런데 이 입장은 구원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입장(광의의 포괄주의)과 비교하여 볼 때 협의의 포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포괄주의는 전통적으로 보편구원론universalism 이라고 불러 오던 것으로 구원의 존재론적 근거는 협의의 포괄주의와 동일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의 대상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게 까지 확대 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구원 받는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보면, 광의의 종교 다원주의자는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한 길(종교)만이 산 정상(구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심지어 길을 전혀 가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산 정상에 오르게 된다.” 광의의 포괄주의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염두에 둘 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구원 받는다는 것이 논리 일관 된다는 주장을 한다.

(3) 폐쇄적 배타주의와 개방적 배타주의

배타주의는 회심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개방적 배타주의와 폐쇄적 배타주의로 나눌 수 있다. 폐쇄적 배타주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종교만이 옳다는 입장으로 다른 종교의 목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입장으로 교조적 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개방적 배타주의는 나의 종교가 옳고 다른 종교는 그르지만, 다른 종교가 옳고 내 종교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내 길이 산 정상으로 가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일 수 있음(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폐쇄적 배타주의이건 개방적 배타주의이건 정반대되는(양립할 수 없는) 주장은 그 중에 하나만이 옳지 모두 옳을 가능성은 철저히 부정한다는 것이다.

표 3: 종교 다원성을 해석하는 6가지 입장-세부 그림

배타주의	폐쇄적 배타주의	내 종교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준다. 또한 회심 가능성도 없다.
	개방적 배타주의	내 종교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주지만, 회심 가능성은 인정한다.
포괄주의	협의의 포괄주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구원을 얻는다.
	광의의 포괄주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다원주의	일원적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동일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
	다원적 다원주의	서로 다른 종교는 서로 다른 구원을 가져다 주며 모두 옳다.

우리는 이제까지 종교 다원성을 바라보는 세 가지 입장과 각 입장을 두 개씩 세분화한 입장을 살펴 보았는데, 이 가운데 성경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입장인가?

4. 배타주의와 포괄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성경적 평가

- 구원의 보편성과 특수성과 관련해서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 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 같이 흐르겠네¹⁴⁾

앞의 고희원의 노래 가사처럼,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교묘한 조화 내지 긴장의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보편성 1), 다른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특수성 1).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보편성 2)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특수성 2)”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내재적인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에 부합하는 것은 배타주의뿐이다. 즉 배타주의만이 보편성 1,2와 특수성 1,2를 모두 인정한다. 포괄주의는 보편성1과 2 그리고 특수성 1만을 인정한다. 또한 일원적 다원주의는 보편성 1만을 인정 하는 반면, 다원적 다원주의는 보편성 1까지도 부정한다.¹⁵⁾

표 4: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와 구원의 보편성과 특수성

	배타주의	포괄주의	일원적 다원주의	다원적 다원주의
보편성 1	○	○	○	x
특수성 1	○	○	x	x
보편성 2	○	○	x	x
특수성 2	○	x	x	x

이제까지 포괄주의와 다원주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폈는데, 이러한 성경적인 비판 이외에 어떤 비판이 가능한가?

5. 배타주의와 포괄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철학적 평가

- ‘다원주의, 포괄주의의 배타성’과 ‘배타주의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관련해서

...가령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의 의견을 가

지고 있다하여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만일 그 의견이 올바른 것이라면, 사람들은 잘못을 버리고 진리를 바꾸어 가질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또한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면, 그들은...진리와 잘못의 충돌에서 태어나는 진리의 더 한층 명확한 인식이나 더 한층 생생한 인상을 잃어버리게 된다...¹⁶⁾

1) 다원주의와 포괄주의의 배타성

배타주의가 배타적이라는 것을 별도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배타주의의 배타성을 비난하고 나선 다원주의와 포괄주의는 배타성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가?

①먼저 포괄주의를 살펴보면, 예수님만이 존재론적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주장 자체가 배타적인 주장이다. 비록 인식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지만,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는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배타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불교도에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불쾌할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¹⁷⁾ 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익명의 불교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포괄주의의 배타성을 지적할 수 것이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심지어 무신론자들 까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천국에 강제로 가야하는 것이므로 배타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②일원적 다원주의는 다원주의를 가장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배타성을 심각하게 드러낸다. 일원적 다원주의자들은 산에 오른 사람들, 꼬끼리를 만지고 있는 장님들 사이에 있지 않다. 이들은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산 위에서 여러 길로 산을 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 눈을 뜬 채 장님들이 꼬끼리를 만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하면서 배타적인 입장인데, 그것은 마치 일원적 다원주의자는 모든 종교적 주장을 상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완전한 실재를 알고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모든 종교는 같은 궁극적인 실재, 같은 구원 이야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가설 때문에 실제로 엄연하게 존재하는 각 종교의 다양성(독특성과 유일성)을 왜곡하고 축소시켜 인위적으로 재구성하는 폭력을 감행한다. 아이러니하게 일원적 다원주의는 현상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종교 다양성조차 획일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¹⁸⁾

③다원적 다원주의는 거대 이야기를 부정하고 불가 공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배타성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같지만, 다원적 다원주의의 주장을 메타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는 이것 역시 배타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옳고 어느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옳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주장 자체는 일원적 다원주의, 포괄주의, 배타주의에 대하여against 배타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¹⁹⁾

2) 배타주의의 다원주의적 성격

다원주의를 다원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정의 할 때,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법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두 옳다”라고 하는 일원적 다원주의의 입장과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고, 그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두 옳다”라는 다원적 다원주의의 입장 외에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양립할 수 없는 주장 가운데 한 주장만 옳고 다른 주장은 틀리지만, 다양한 주장은 유익을 가져다준다(내지는 줄 수 있다).”라는 고전적 다원주의²⁰⁾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원적 다원주의는 전술한 것처럼 다양성을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이므로 진정한 다원주의라고 보기 힘들고, 다원적 다원주의는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무런 한계 없이 다원주의를 고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한계 내에서 다원주의적 요소를 살리려는 고전적 다원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만이 옳고 나머지는 그르다고 하면서, 설득을 통해 내 종교가 틀리고 다른 종교가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개방적 배타주의야말로 진리의 한계 내에서 다원주의를 취하려는 고전적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다.

표 5: 일원적 다원주의, 다원적 다원주의, 고전적 다원주의 비교

	일원적 다원주의 (명목상 다원주의)	다원적 다원주의 (진리 희생적 다원주의)	고전적 다원주의 (개방적 배타주의)
유일성(실제적 다원성)	x	o	o
우월성(진리 판단 가능성)	x	x	o

6. 나가며

- 신념 있는 관용을 향해 toward convicted tolerance

마틴 마티Martin Marty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점이다. 나는 우리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 있는 태도에다가 우리 신념에 대한 ‘강렬한 정열’을 결합할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도전은 신념 있는 시민 교양convicted civility을 계발하는 것이다.²¹⁾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달걀을 깨는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다.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라고 최면을 걸거나(일원적 다원주의) 생각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이 모두 옳다고 말하는 태도(다원적 다원주의) 역시 잘못이다.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며(관용)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리라고 믿는 바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전적 다원주의, 개방적 배타주의).

교 다원주의를 취해야 하고, (일원적)종교 다원주의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궁극적인 실재)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독교는 제거 되어야 할 교리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 한다는 점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②다원적 다원주의와 관련해서는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 보다 우월하지 않다면 윤리적인 행동을 권하는 종교와 악행을 조장하는 종교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윤리적 상대주의를 가지고는 실제로 삶을 살 수 없고, 구원의 개념의 포괄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의 종교 마다 나름의 구원이 있다는 것만 인정 할 경우 모든 것이 종교가 되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처럼 어떤 의미도 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③협회의 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인은 구원을 받지만 비종교인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너무 순진한 구분이다. 제도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만이 종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제도적인 종교는 믿지 않더라도 나름의 신(우상)을 섬기며 살므로 아무도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협회의 포괄주의는 광의의 포괄주의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④광의의 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상은 마치 사랑의 신 개념에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말처럼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상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동의할 것이다”라는 신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어느 측면에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이들이 싫든 좋든 (기독교 식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권위적 선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갖는 신학적 함의를 피하기 위해 고전적 다원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1) 리처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홍병룡 역, IVP, p16